

## 다른 나라에서의 外來語 受用 양상

俞 萬 根(成大)

—편집실 정리

이 글은 俞萬根 教授(成均館大 英語學)가 語學研究 16卷 1號 (1980, 서울대 어학연구소)에 발표한 “外來語 受用方式에 대한 고찰—英·佛·中·日의 예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이를 허가해 준 俞教授께 감사를 드린다.

인류 역사상 어떤 민족도 고립되어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어떤 민족의 언어이든 다른 민족과의 교류과정에서 들어오게 된 外來語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외래어가 수용될 때는 自國의 言語體系에 맞게 변형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면모를 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인 英語, 佛語, 中國語, 日語 등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I. 英語에서의 外來語 受用

영어는 외래어를 아주 많이 가진 언어로 그 어휘 구성 비율을 보면 양갈로—각슨 固有語가 겨우 30% 정도이고, 외래어로는 나전語, 佛語 계통이 60% 가까이 되고 그 밖에 세계 각국의 말이 잡다히 들어와 있다.

이와 같이 거리낌없이 영어 속에 들어와 있는 외래어는, 그 모습이 많이 변하여 특별히 語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고유어인지 외래

어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된 것이 많다. 이제 그 외래어들이 영어화되는 유형을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I. 1. 音聲 代置

音聲 代置(phonetic substitution)는 어느 나라 말에서도 두루 보이는 현상으로 이는 外國語에서만 쓰이는 음성을 自國語에서 쓰이는 비슷한 음성으로 代置하여 自國語 音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가령 佛語 'rouge'의 'r'字의 음은 목젓 마찰음(fricative uvular r)인데, 영어에 들어와 쓰일 때에는 영어답게 혀끝 마찰음(fricative lingual r)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불어 'Paris'의 'P'字의 음이나 우리나라 'Kim'(金)의 'K'字 소리는 氣(aspiration)가 약한 것인데 그것을 영어에서는 帶氣音(aspirated sound)으로 대치한다. 스위스 地名 'Zurich'(獨語 Zürich)의 영어 발음은 ['zju:erik]인데 마지막 음인 'ch'音(마찰음)이 파열음으로 대치된 것이다. 이 밖에 다음의 것들도 영어에서 쓰지 않는 음성을 영어에서 사용되는 음성으로 대치한 예이다.

début [deby] — ['deibju:]  
 ennui [ǎnqi] — [ɔ'nwi:]  
 Goethe[gø:tə] — ['gø:tə] 또는 ['gø:ti]

### I. 2. 綴字式 發音

외국어의 철자를 그대로 쓰면서 발음만 영어식으로 하는 예이다. 가령 佛語의 固有名詞로

Charles [ʃarɫ] → [tʃa:ɫz]  
 Eiffel [ɛfɛɫ] → ['aifɛɫ]  
 Paris [pari] → ['pæris]

그리고 化單語 [하스] (gas)는 영어에서 [gæs]로 발음되고, 서반아語 [아르헨띠나](Argentina)는 [a:dʒən' ti:nə], [메히꼬](Meico)는 ['meksi-kou]가 된다.

越南地名 Saigon은 원래 ‘西貢’으로서, 그 월남식 漢字音を 佛語로 ‘Saigon’ [səgõ]이라 한 것인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철자는 그대로 두고 발음만 영어식으로 [sai'gon]이라 하는 것이다.

### 1.3. 영어의 音韻體系에 맞춘 것

佛語 ‘ballet’ [balɛ], ‘cabaret’ [kabærɛ] 같은 것이 영어에 와서는 ['bæleɪ], ['kæbæreɪ]가 되는데, 첫 음절의 [a]가 [æ]로 되는 것은 現代英語 母音體系上, 열린 앞쪽 모음 [a]는 二重母音 [ai]나 [au]의 첫 要素로만 쓰이고 단독으로 쓰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a]와 調音 위치가 가장 가까운 단순모음 [æ]로 대체된 결과이다.

한편, 열린 뒤쪽 모음 [a]는 현대 영어 R.P.(Received Pronunciation) 모음체계상으로는 長母音으로만 쓰이는 것으로 의태어의 원음이 짧은 [a]로 된 것이면 그것과 調音點이 가장 가까운 영어 短母音 [ɔ]로 대체된다.

encore [ākɔɹ] → ['ɔŋkɔ:]

이상의 예는 앞에서 언급한 소리 대체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여가서는 단독 音價보다 영어 音韻體系가 더 많이 관련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외국어의 어떤 소리가 영어 음운체계에서도 이미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더라도 그것이 나타나는 환경에 의해서 적절히 바뀌어 질 수 있다. 가령 모음 ‘e, æ, ʌ, ɔ’는 영어에서 흔히 쓰이는 것이지만 이것들은 語頭나 語中에만 쓰이고 語末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어 원음이 이런 모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영어에 借用될 때 이 마지막 모음은 적절히 변경되게 된다.

atelier [atəlie] (佛) → ['ætəljeɪ]    sake [사케] (日·酒) → ['sa:ki]  
 fiancé [fjāse] (佛) → [fi'ā:nsei]    finale [휘날래] (伊) → [fi'na:li]

앞에 나온 ‘ballet’, ‘cabaret’의 마지막 모음의 영어 발음이 [ei]로 된 것도 원어의 [ɛ]에 가장 가까운 영어의 음이 [e]인데 이것이 語末에 올 수 없기 때문이다.

#### I. 4. 외국 고유명사의 뜻을 번역하거나 철자를 바꾼 것

##### 가. 뜻을 번역한 것

Côte d'Ivoire → Ivory Coast

Jean sans Terre → John Lackland

##### 나. 철자를 바꾼 것

Venezia [베네치아] (伊) → Venice ['venis]

Napoli [나폴리] (伊) → Naples ['neiplz]

Jean Valjean [장발장] (佛) → John Valjean ['dʒɒn væl'dʒi:n]

#### I. 5. 外來語에다 自國 本來語의 接辭를 붙이는 것

unaided, unconscious, forecast, overcharge, nicely, pleasantly,  
cheerful, beautiful, gentleness, companionship 등

#### I. 6. 엉뚱한 뜻 붙이기

외국어를 수입할 때 외국어의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외국어 소리를 自國語의 뜻을 지닌 어떤 소리로 다듬는 수가 있다. 이렇으므로써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에 편리하게끔 하는데, 영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So long : 아라비아 말 'salaam'(平安, peace)이라는 말이 말레이 말에서 'salang'으로 되고 그곳에 주둔하던 영국 군인에 의해 영어에서 쓰이면서 'so long'이 됨.

Lake Success : 뉴욕의 과거 U.N. 본부 소재지. 이 말은 본래 'success'와는 관계가 없는 인디언 말 'suksat'가 그렇게 바뀐 것임.

Key West :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지명인데, 서반아 말 'Cayo Hue So' ('骨洲' 또는 'Bone Island' 정도의 뜻으로서, 근처 바닷가에서 무슨 사람 뼈가 발견되었다하여 서반아 사람이 지은 이름)의 소리가 변하여 된 것.

#### I. 7. 語形 固定

외국 지명 같은 것이 일단 영어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것이면 외국 현지에서 그 이름이 바뀌어도 영어에서 일일이 따라 바꾸지 않는다.

'Corea' 또는 'Korea'는 '高麗'에서 온 이름으로 高麗가 朝鮮, 韓國으로

바뀌어도 계속 'Corea' 또는 'Korea'다. 마찬가지로 'Boreno', 'Ceylon', 'Japan'은 각각 現地에서 'Kalimantan', 'Sri Lanka', 'Nippon'이라 하지 만 영어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Borneo', 'Ceylon', 'Japan'으로 쓰인다.

### I. 8. 固有語 音韻變化에 걸맞은 變하는 것

외국 고유명사라도 일단 영어에 들어와 쓰이게 된 것이면 그 후부터는 영어 음운 변화의 지배를 받는다. 가령 'Egypt'는 중세 영어 때까지만 해도 첫 음절에 [e:]음이 유지되었으나, 영어의 大母音轉移(The Great Vowel Shift, 가령 'See'의 발음은 이때 [se:]에서 [si:]로 바뀜)로 ['i:dʒipt]가 되었다. '메콩(The Mekong)'江이나 '네로(Nero)' 皇帝의 'e'字 發音도 현대 영어에서 [e(:)]로 발음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같은 이름도 일반 語辭나 다름없이 영어화하여 특히 그 母音은 한국어의 '예수 그리스도'보다 原音에서 훨씬 거리가 먼 ['dʒi:zəs kraist]가 되었다.

이와 같이 영어화되는 것 외에 단어의 길이를 줄이거나, 文法 機能의 變化를 가져오거나, 英語式 強勢(stress)가 부여되거나 하는 등의 많은 영어식 변화가 있다.

## II. 佛語에서의 外來語 受用

佛語는 로만스(Romance 혹은 Neo-Latin) 諸語의 하나인데 이 속의 외래어로는 희랍어, 켈트어, 게르만어, 아랍어 등등의 것들이 있다. 그러나 佛語는 외래어를 비교적 적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 받아들일 때에는 프랑스 翰林院(Académie Française)같은 권위있는 기관에서 엄격한 검토끝에 차용한다. 또 외래어 수용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불어답게 換骨奪胎해서 佛語답게 만든다. 그 면모를 몇가지 보면 다음과 같다.

## II. 1. 綴字와 發音을 모두 佛語답게 바꾸는 것

### 가. 一般 語辭

paquebot	[pakbo]	← packet boat
boulingrin	[bulɛgrɛ]	← bowling green
contredance	[kɔ̃trədãs]	← country dance
redingote	[R(ə)dɛ̃gɔt]	← riding coat
bifteck	[biftek]	← beefsteak

### 나. 固有 名詞

Amérique	[amerik]	(America)
Boccace	[bɔkas]	(Boccaccio)
Californie	[kalifɔ̃ni]	(California)
Chypre	[ʃipR]	(Cyprus)
Écosse	[ekɔs]	(Scotland)
Édinbourg	[edɛbur]	(Edinburgh)
Irlande	[irlād]	(Ireland)
Léonard de Vinci	[leɔ̃nɑrdɔvɛ̃si]	(Leonardo da Vinci)

## II. 2. 綴字式 發音

외국어 철자를 그대로 두고 佛語式으로 발음하거나, 原音과 佛語發音을 절충한 것이 있다.

bookmaker (馬券業者)	[bukmɛkrə]
five o'clock (午後茶)	[fivɔklɔk]
high-life	[iglif]

## II. 3. 語形 일부 대체 및 조절

外國語 단어의 일부분을 뜻이 같은 佛語로 代置하고 語形을 조절하여 佛語답게 하는 것이 있다. 가령 英語動詞 'blackball'(反對 投票 (黑球)로 내쫓다)에서 '-ball'을 佛語의 'boule'로 代置하고 佛語 動詞 語尾를 붙여 'blackbouler' [blakbule]를 만드는 것이다.

이태리語 'pulitezza'에서 첫머리를 'poli-'로 代置하고 語形을 조절하여 'politesse'가 만들어진다.

## II. 4. 외국 固有 名詞를 번역

les États-Unis←the United States  
(Pays de) Galles←Wales  
Nouvelle-Galles du Sud←New South Wales  
Côte d'Or←Gold Coast  
Jacques I<sup>er</sup>←James the First  
Terre-Neuve←Newfoundland

## III. 中國語에서의 外來語 受用

### III. 1. 一般 語辭

중국어에서는 一般 外來어가 그리 많지 않으며, 既存語 轉用이나 새로운 造語 또는 借用翻譯(loan translation)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가후스/커피스(cuffs)←袖口	코레라(cholera)←霍亂病
쿠데타(coup d'état)←武裝政變	콘돔(condom)←避孕套
카나리아(canaria, canary)←金絲鳥兒	키로그램(kilogramme)←公斤
카바(cover)←覆蓋物, 外皮	키로메타(kilometer)←公里
카스테라(castella)←鷄蛋糕(chitankao)	키파(keeper)←守門員
칵테일(cocktail)←鷄尾酒	바리깡(bariquant)←推子
캄푸라지(camouflage)←掩飾, 偽裝, 迷彩	파라솔(parasol)←旱傘
캥가루(Kangaroo)←袋鼠	피아노(piano)←鋼琴
캐처(catcher)←接球手	

그러나 外國의 고유 명사 등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象形文字인 漢字의 특성이 반영된다. 이를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III. 2. 音譯에다 意味 내지 屬性을 加味한 것

中國語의 音譯固有名詞라는 것은 外國語 발음을 漢字로 表記한 것이지만, 거기서 순전히 소리만을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소리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漢字가 지닌 뜻을 적절히 살려 外國 人名이나 地名이 지

닌 어떤 屬性을 연상케 함으로써 기억을 돕는 방향으로 배려하는 듯하다.

가령, 사랑의 神 ‘에로스(Eros)’는 ‘愛羅斯(ailossu)’라 하여 ‘사랑애(愛)’字가 들어 있지만 ‘에베레스트(Everest)’山은 原音의 발음상 같은 ‘에’로 시작되지만 ‘挨佛勒斯’峰(aifolèssuféng)이라 하여 ‘밀칠(때밀) 애(挨)’字로 시작하여 모든 群峰을 물리치고 솟은 最高峰을 연상하기 좋게 되어 있다. 南아메리카 赤道 근처의 나라 ‘에콰도르(Ecuador)’은 역시 ‘에’소리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거기서는 ‘厄瓜多爾(ékuatoêrh)’로 되어 있다. 發明家 ‘에디슨(Edison)’은 인류 문명생활을 前進시킨 사람 이름답게 ‘나아갈 적(迪)’字를 넣어 ‘愛迪生(aitishéng)’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例도 漢字를 아는 사람에게는 순전히 소리만을 적은 것 같지는 않게 느껴진다.

斯替文生(ssüt‘iwénshéng)—英國 小說家 R.L. Stevenson  
赫魯雪夫(ho lu hsüehfu)—소련 政治家 N.S. Khrushchev  
希特勒(hist‘êlê)—독일 政治家 A. Hitler  
華滋華斯(hua tzü hua ssü)—英國 詩人 W. Wordsworth  
馬克思(mak‘ossü)—독일 經濟學者 K. Marx  
戴高樂(tai kao lê)—불란서 軍人 政治家 C. de Gaulle  
亞歷山大(yalishanta)—마케도니아王 Alexander

그 밖의 음역 글자로서 특히 좋은 뜻을 가진 字를 선택하여 큰 度量을 보이는 듯한 것도 있다.

意(義)大利—이태리	培根—베이컨(F. Bacon)
法國—불란서	福爾泰—볼테르(Voltaire)
德意志—독일	康德—E. 칸트
雅典—아테네	

### Ⅲ. 3. 뜻을 번역해서 만든 固有名詞

冰島(Iceland)	眞理報(소련 공산당 기관지 Pravda)
國際合衆社(U.P.I.)	消息報(소련 政府 기관지 Izvestiya)
美聯社(A.P.)	讀者文摘(Reader's Digest)

Ⅲ. 4. 一部는 뜻을 翻譯하고 一部는 소리를 따서 만든 것

新德里←New Delhi

新西蘭←New Zealand

南斯拉夫←Yugoslavia

賽珍珠(sai chên chu)←Pearl Sydenstricker Buck

以上에서 밑줄친 부분은 뜻을 번역한 것이다.

Ⅲ. 5. 單 漢字 使用國의 固有名詞는 中國式 漢字音으로 읽는다.

han ch'êng, 漢城(서울)                      tung ching, 東京(동경, Tokyo)

chin, 金(김)                                      tap'ing, 大平(대평, Ohira)

ts'ui, 崔(최)

Ⅲ. 6. 새로 作名하는 것

檀香山—Hawaii(檀香木의 產地, 實是地였던 연유로).

舊金山—San Francisco (1849년 gold rush와 관련해서)

Ⅲ. 7. 化學 元素 이름의 경우

金, 銀, 銅, 鐵, 鉛, 汞 같은 것은 이미 옛날부터 一般的으로 흔하게 쓰여온 글자들이며 그대로 化學元素 이름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것 뿐 아니라 元素 百여개를 모두 한 글자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중에 '쇠 금(金) 변'의 글자가 가장 많고 '돌 석(石) 변'의 글자도 꽤 있으며, 氣體는 대체로 '기' 밑에 單 成分을 붙여 새로 만든 글자가 많다.

鋁(Al)—알루미늄, 錳 (Mn)—망간, 鉀(K)—가리 :

硫(S)—황, 砷(As)—비소, 碘(I)—요드 :

氫(H)—수소, 氧(O)—酸素, 氟(F)—불소

이외에 관직명을 중국식으로 고친다든지, '名—姓'을 '姓—名'의 순으로 바꾼다든지(John Locke→洛克約翰) 등의 변화도 있다.

#### Ⅳ. 日本語에서의 外來語 受用

日本은 漢字뿐 아니라 西洋 各國의 말에 이르기까지 외래어를 많이 받

아들여 쓰는 나라로 볼 수 있다. 日本語는 그 音節수가 51 音節에 국한되므로 외래어도 이 범위내에서 변형되어, 이 외래어는 原音과 영똥하게 달라져 일본 사람 외에는 原語를 아는 사람도 알아 듣지 못 할 만큼 되는 수가 많다. 또 漢字로 된 中國이나 韓國 固有名詞도 거의 모두 日本式 漢字音으로 읽어 버리기 때문에 發音이나 記憶上 특별한 불편이 없다.

일본어 속의 외래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IV. 1. 補助母音 追加

日本語 音節 구조의 성격상 그 外來語에는 原音에 없는 補助母音이 많이 쓰인다. 그런데 그 追加되는 母音은 한가지로 固定된 것이 아니고 形편에 따라 融通성 있게 선택된다.

- (1) [i] 追加 : inki (ink), sutekki (stick)
- (2) [e] 追加 : hipokonderi (Hypochondrie)
- (3) [a] 追加 : bira (bill) [참고] : gera (galley)
- (4) [o] 追加 : bando (band), poketto (pocket)
- (5) [u] 追加 : baketsu (bucket), biru (beer), orinpikku (Olympic)

그런데 흥미로운 例로, 英語 一音節語 ‘strike’은 日本語에 와서 補助母音을 받아 五音節語가 될 뿐만 아니라 그 補助母音의 종류가 뜻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즉,

sutoraiki (‘同盟罷業’의 뜻)  
sutoraiku (野球用語)

#### IV. 2. 單語 길이 줄이기

原語의 첫머리만 따서 사용하는 것이 많다.

chinki (tincture의 tinc-에서)	panku (puncture의 punc-에서)
ekkiisu (extract의 ex-에서)	terebi (television의 televi-에서)

### IV. 3. 뜻이 原語와 아주 달라진 것

- saidā (영어 soda pop의 뜻, 사이이다. cf. 영어의 ‘cider’는 사과술의 뜻)  
 chakku (영어 zipper의 뜻, 작구 cf. 영어 ‘chuck’는 물건이나 송곳같은  
 것을 고정시키는 기계 장치)  
 janpa (영어 jacket의 뜻, 잠바 cf. 영어 ‘jumper’는 앞가슴이 막힌 옷)  
 jokki (영어 mug의 뜻, 죽기 cf. 영어 ‘jug’는 보통 우유나 물을 담아 놓  
 았다가 잔에 따르는 손잡이 달린 큰 그릇)

### IV. 4. 似而非 外國語에서 온 外來語

이것은 外國語 성분을 이용하되 日本式 造語法으로 原語에 없는 合成語  
 를 만드는 것이다.

- gōru-in (\*goal-in)—영어로 ‘scoring a goal’의 뜻.  
 naitā (\*nighter)—영어로 ‘night game’의 뜻.

### IV. 5. 漢字로 된 外國 固有名詞

韓國이나 中國의 漢字로 된 固有名詞는 日本式 漢字音으로 받음한다.

#### (1) 韓國語

- |                      |                       |
|----------------------|-----------------------|
| 崔昌華(최창화)→ sai shōka  | 迎日灣(영일만)→ geinichiwan |
| 江陵(강릉)→ kōryō        | 議政府(의정부)→ giseifu.    |
| 白翎島(백령도)→ hakurei-tō | 淸州(청주)→ seishū        |
| 鴨綠江(압록강)→ ōryokko    | 平壤(평양)→ heijō         |

#### (2) 中國語

- |                             |                               |
|-----------------------------|-------------------------------|
| 臺北 (taipei)→ taihoku(台北)    | 山東 (shantung)→ santō          |
| 洞庭湖 (tungting-hu)→ dōtei-ko | 旅順 (lushun)→ ryojun           |
| 奉天 (feng-t'ien)→ hōten      | 李鴻章 (li hung chang)→ rikō shō |

이외에 일본어 속의 외래어 중에는 원음이 短母音인 것이 長音化되는 등의  
 變化(예컨대 영어의 短母音 [-i]로 끝나는 ‘country’, ‘company’, ‘ruby’,  
 ‘coffee’, ‘taxi’등의 短母音이 모두 日語에서는 長母音 기호를 수반하여  
 적힌다)도 있다. \*

□ 解 說 □

## 外 來 語

外來語는 보통 국어가 빌어 쓰고 있는 다른 언어의 단어를 말하는 것으로 學術的으로는 借用語(loan word)라는 用語가 더 쓰이고 있다. 이 外來語는 서로 다른 言語體系를 가진 국가 또는 지역간의 文化, 文物의 교류 과정에서 어찌 한 언어가 다른 언어의 단어를 빌어다가 자신의 言語體系에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문화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나라가 없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외래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이 외래어는 固有語와 함께 自國語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외래어는 국어의 일부가 되며 이 점에서 外來語와 外國語는 다르다. 흔히 상품 또는 간판 이름에 너무 외래어가 많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이 중에는 외래어뿐 아니라 외국어가 뒤섞여 있는 것이다(이 외에 國籍不明語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이 중에는 실제로 국어 속에서 쓰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어디까지가 외래어이고 어디까지가 외국어인가를 구체적으로 구별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가령 지식인들은 보통 사람보다 외래어의 사용폭이 클 것이고 그 말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보통 사람들은 이들의 언어에서 外國的 요소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또 각각의 전문 분야에 따라 그 외래어가 달라질 것이며, 개개인에 따라 자신이 외래어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국 외래어와 외국어의 판단의 기준은 궁극적으로 언어 사용자의 국어 의식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

어떤 외국어가 국어 속에서 사용될 때 외래어가 되지만, 이 외래어는 단순히 국어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어라는 言語體系에 따라 변형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운, 문법, 의미 등에 걸쳐 그 모습이 국어화된다.

우선 다른 언어와 국어의 음운 체계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수입 당시의 원래 발음은 自國의 음운 체계에 따라 변화된다. 이때 自國語에 없는

外國語의 發音은 가장 가까운 음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의 대다수의 漢字音이 이런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영어의 /l/, /r/이 /ㄹ/ 또는 /ㄴ/으로(radio→라디오, 나지오; lamp→램프, 남포), /f/가 /ㅍ/ 또는 /ㅎ/으로(fry→프라이, 후라이), /ɔ/가 /오/ 또는 /어/로(coffee→코피, 커피) 받아들여지는 것도 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다.

또 重字音을 회피하기 위하여 음절수를 늘린다든지(strike→스트라이크), 긴 음절의 일부를 줄여 간략히 한다든지(apartment→아파트)와 같은 변화도 생긴다.

한편 原語에 있는 문법적 특성이 국어의 체제에 따라 변형되거나 상실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주로 국어에서는 외래어를 名詞 또는 語根 단위로 차용하게 되어, 이를 動詞나 形容詞로 만들기 위해서 원어에 다시 '~하다' 등의 접사를 붙이게 된다(hit(動)→히트하다, 히트치다; wild(形)→와일드하다). 한편 原語에서 명사로만 쓰이는 'necktie'에 '하다'가 붙어 동사로 쓰게 되는 경우(넥타이하다)도 있다. 한자어의 '變하다', '善하다', '改定하다'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문법 기능의 변화 외에 우리 국어 문법에 없는 性이나 數와 같은 범주는 수용되지 않는다.

이런 음운, 문법적인 변화 외에 외래어가 原語와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아르바이트'와 '바캉스'는 자기 독어의 'Arbeit'와 불어의 'vacance'에서 온 말로, 국어에서 '아르바이트'는 '부업'을, '바캉스'는 '(특히 여름의) 휴가 여행 또는 피서지에서 휴가를 보내는 일'을 뜻하나 原語에서는 각각 '일' 및 '휴가'를 뜻한다.

이와 같이 수입 과정에서 自國語 體系에 따라 同化되고 또 그 쓰임이 빈번해짐에 따라 외래어는 점차 외국어 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固有語와 구별되지 않게 되는 歸化過程을 밟게 된다. 外來語가 귀화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서울대학교 東亞文化研究所編, 國語國文學事典(1973) 참고).

(1) 아직도 외국어와 다름없는 생소한 느낌을 갖는 외래어 : 커피(koffij, 홀란드어), 카스텔라(castella, 포르투갈어), 킬로그램(kilogramme, 불어) 등

(2) 아직 고유어로 익어버리지 않고 외국어 의식이 조금 남아 있는 단계의 차용어 : 썬봉(jupon, 불어), 타이어(tyre, 영어) 등

(3) 차용된 지 오랫동안 쓰임에 따라 완전히 고유어에 동화된 귀화어 : 고무(gomu, 홀란드어), 붓(筆, 중국어), 구두(クツ, 일어) 등

국어 속의 외래어는 그 도입 시기에 따라 근대화 이전에 들어온 외래어와 이후에 들어온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근대화 이전에는 대개 중국어(文語口

語 포함), 만주어, 몽고어, 범어 등의 외래어가, 근대화 이후의 것으로는 구미  
諸語(특히 英語) 및 일본어 등의 외래어가 직접 또는 제 3국을 통하여 국어 속  
에 들어와 있다.

이 중 근대화 이전에 들어온 외래어는 원래 모습에서 크게 변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입된지 오래되어 이미 외국어 의식이 사라져 대부분이 귀화 단계에 있  
다. 국어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자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근대화 이  
후에 들어온 외래어는 아직 귀화 단계에 이르지 못해 외국어 의식이 강하게 남  
아 있는 편이다.

외래어는 그 유입 경로나 수입 시기에 따라 같은 기원의 말이 그 꼴이 달라지  
기도 하고 의미 분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가령 ‘납포’와 ‘램프’는 다 같이  
영어의 ‘lamp’에서 왔지만 그 시기 차이가 의해 꼴이 달라지게 되었다. ‘컵’과 ‘고  
뿌’는 다 같이 영어의 ‘cup’에서 기원했지만 후자는 日本을 통해 들어온 것이다.  
‘고무’와 ‘껌’은 국어에서는 의미가 다르지만 ‘gomu’(홀란드어)와 ‘gum’(영어)  
은 같은 기원의 말로 그 의미도 거의 같다(영어에서는 씹는 껌을 보통 ‘chewing  
gum’이라고 함).

지금까지 어떻게 외래어가 自國語에 수용이 되며 귀화 과정을 겪게 되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외래어는 이런 과정에서 국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우  
선 국어의 語彙를 풍부하게 해 주며, 同音異意語를 증가시키며, 국어에 없는 발  
음이나 음운 규칙에 어긋난 발음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러나 外來語는, 그 수가 너무 많아지면 고유어가 위축이 되며 외래어식 造  
語法이 발달이 되어 自國語의 생명력에 이상을 주고 원활한 기능을 빼앗아 가는  
逆機能을 가지고 있다. 국어의 경우 한자어에 있어서 현저하며, 새로 들어온 구  
미 외래어도 그 수가 급증하여 이미 自生的인 造語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점이 우리가 外來語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다.